

# 설 민심에 이름 알리기... 줄잇는 총선 출사표

### 더민주 이남재, 국민의당 윤봉근·홍인화 출마 선언

### 광주 21명 등록 경쟁률 2.6대 1... 전남 52명 등록 4.7대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야권 지형 재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4·13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일부 출마예정자들도 결정을 내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들 차츰 진용을 갖춰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입지를 다지고, 설 연휴기간 지역 민심에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민주에 잔류를 선언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복심'으로 잘 알려진 이남재 예비후보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광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복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적 본분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 전 대표가 제시한 '저녁이 있는 삶'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어제 손 전 대표께 말씀드렸더니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라'고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손 전 고문이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내는 동안 대표실 부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총괄본부장을 맡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국민의당 후보들도 출사표가 이어졌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으로 대한민국과 광주의 앞

날을 밝고 힘 있게 열어가겠다"고 광산 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은 "광역의원, 교육위원, 기초의원 등 3대 풀뿌리 지방자치권을 경험했다"며 "이를 토대로 총선에서 당선돼 내년 대선에서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홍인화 전 광주시의회 의원도 이날 "경제·지역 불평등을 허파할 야권 새판 짜기로 광주와 복구에 희망을 싣고 뛰어들겠다"며 복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과 홍 전 시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회에 참여했다가 최근 통합으로 국민의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장은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김동철 의원의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홍 전 시의원도 이미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경진 변호사 등의 예비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설을 앞두고 이번 주 본격적인 예비후

보 등록과 함께,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에 복당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3일 오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동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현황을 보면 광주가 8개 선거구에 21명이 등록해 2.6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은 11개 선거구에 52명이 등록해 4.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선거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데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을 것"이라며 "아직 선거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설 연휴기간 인지도를 높이며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4·13 총선 현장

###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민생”

####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1일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고, 민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일당 기초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대립과 대결의 악순환 속에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겁박하

며 정적법인의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

드는 반의회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파견법 연계 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책임”

####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누리과정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거해 유아교육 및 보육은 무상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아교육법상의 교육보육 예산을 시·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 양향자 광주 또는 수도권·오기형 광주출마 유력

### ‘더민주’ 영입인사 출마지 윤곽

### 표창원·김병관·박희승 등 수도권 빅매치 우선 투입론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외부 인사들의 출마 지역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현재까지 공식 영입인사는 1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부터 시작해 지난달 27일 입당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등 모두 19명이다.

이 가운데 오기형 변호사와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광주 출마가 유력하다. 특히 광주 동구와 남구, 광산구 등이 거론된다. 전북 정읍 출마를 선언한 하정열 한 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전북 정읍,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과 팻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한 오창석씨는 부산 출마가 각각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인사들은 출마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내에서는 영입인사들의 수도권 우선 투입론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인사별 특성에 맞는 지역구 분석과 시뮬레이션 자료가 실무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영입인사들은 수도권 빅매치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격형·맞춤형 공천을 통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과 선명한 선거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 이겼지만 총선에서 진 지역구가 우선적인 투입



‘더민주’ 비대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도 철원 출마 의사를 밝힌바 있는 김경우 세종대 교수에 대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교수는 철원 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재정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리려면 개발 수요가 많은 서

울 용산이나 여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도전장을 낸 경기 성남시 분당갑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창원 전 교수, 김병관 웹툰 이사회 회장,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년 디자이너 김민씨도 수도권 출사표를 던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수도권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표 전 교수와 양 전 상무는 이번 총선의 ‘빅 카드’ 중 하나여서 출마 지역은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홍진태 전 국장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 선언

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이 2일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구는 앞으로 광주발전을 선도 할 지역발전의 중심전략지역이다. 동구의 문제는 광주 전체의 문제이고 동구의 발전전략은 광주 전체의 발전전략이 될 것”이라며 “저는 동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동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과제별 장단기 정책을 마



련하고 추진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발전 전략으로 ▲금남로·충장로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특구발전방안 추진 ▲노인일자리 만들기 ▲자산유원지 활성화 ▲경양방죽 복원 등을 내세웠다.

### 부정선거·갑질행정... ‘하지 않겠다’ 10대 약속

####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동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하지 않겠다’는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10대 약속은 ▲부정선거·불법선거 하지 않겠다 ▲상대를 비방하지 않겠다 ▲인사 청탁을 받지 않겠다 ▲정당한 평가 없이 전임 정장의 사

업을 폐기하지 않겠다 ▲실현하지 못할 공약은 말하지 않겠다 ▲갑질 행정은 용서하지 않겠다 ▲시민형세 허투루 쓰게 하지 않겠다

▲과시하기 위해 동원하지 않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분열시키고 대립시키지 않겠다 ▲정치 목적의 사조적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

**★ 4성급 ★**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건축면적 7,091㎡ (2,149평)  
토지면적 3,478㎡ (1,054평)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1층)

연락처 061-242-7782, 010-9868-5151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27)	광주교육대학교(13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6. 3. 4(금) 09:10 (초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6. 3. 4(금) 14:10 (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6. 3. 5(토) 09:1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6. 3. 7(월) 14:1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 3. 31(목) 09:00 (중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6. 3. 31(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 3. 5(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6. 1. 27(수)~3. 5(토)	2016. 1. 27(수)~3. 5(토)
수업기간	2016. 3. 4(금)~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3. 7(월)~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문의	·문 의: 0622950-3582~4 ·지도교수(선병권): 010-3614-4160	·문 의: 0622520-4243 ·지도교수(선병권): 010-3614-416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